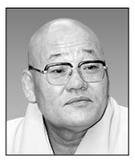
일주문



청년회 법회 법문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3월 12일 오후 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리는 조계사 청년회 2900회 정기법회 기념법회에서 법문한다. (02)735-3724

평불협 정기총회

법타 스님은 3월 3일 오후 3시 성북동 통일법당에서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창립 13돌 통일법당 개원 1주년 기념법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한암대종사 열반재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3월 23일 오전 10시 적광전에서 제54주기 한암대종사 열반재를 봉행한다.(033)332-6661~5

춘천불교방송 사장에

홍사성 前 불교신문 주필이 3월 3일자로 춘천불교방송 제3대 사장에 임명됐다. 홍사장은 불교방송 방송본부장, 불교TV 제작국장 등을 역임했다.

부산여성불자회 창립 기념법회

부산여성불자회 왕선자 회장은 3월 9일 12시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부산여성불자회 창립 1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51)817-3166

변호사 사무실 개업

사법연수원 불자모임 다르마법우회 34기 회장 이만덕 변호사는 2월말 서울 서초구 우성빌딩 6층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02)587-8100

수불 스님 '몽산법어 선해' 테이프 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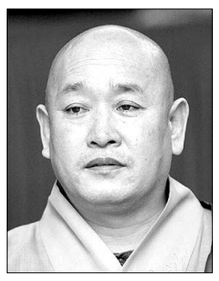
서울 안국동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사진)의, 참선인을 위한 육성 법문 테이프 <몽산법어 선해>가 나왔다. '몽산법어'는 중국 원나라 시대 몽산 스님이 지은 선수행의 길을 자상하게 설한 법어를 말한다. 60분용 테이프 8개 1세트로 구성된 <몽산법어 선해>는 '고원상인에게 보임' '각원상인에게 보임' '유정상인에게 보임' '총상인에게 보임-상' '총상인에게 보임-하' '무자십절목' '휴휴암주좌선문/대중에게 보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부록으로 수불 스님이 '불교TV 무상사 특별법회에서 설한 '종교를 믿는 이유와 목적'도 수록됐다. (02) 737-0695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인사 **천태종** △참의원장 권무원 △총무국장 월도 스님 △교무국장 월중 스님 △의전과장 덕진 스님 △사회과장 정도 스님 △섭외과장 성도 스님 △시설과장 대명 스님 △교무부 서기 준영 스님 △사회부 서기 혜공 스님

불교복지전문연구소 개설 적극 추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



"앞으로 불교는 문화와 복지라는 옷을 입고 사회로 다가가야 합니다."

2월 24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로 임명된 지현 스님(봉화 청량사 주지 · 사진).

스님은 "사회부장의 당연직이었던 복지재단 상임이사가 별도 소임이 된 것은 종단이 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표현이고 사회의 흐름에 대한 불교의 응답"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재단 10주년을 맞아 부임해온 만큼 불교복지전문연구소 개설과 자원봉사자 교육 체계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불교 복지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스님은 평소 "받는 불교에서 주는 불교로, 산중불교에서 대중불교로 나아가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영주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해왔다. 스님은 특히 지역 주민들과의 연계로 지방 복지관 자원봉사자 수급에 기여해 탁월한 사업 능력과 추진력을 보여 왔다.

그래서 종단 안팎에서는 스님이 불교사회복지의 영역을 확대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한국의 포교역량 몽골에 접목되길 …"

몽골 간단사 주지 초이잠츠 스님 방한

"몽골불교는 사회주의 정권의 혹독한 탄압으로 1937~39년 사이 십만 명에 가까운 스님들이 죽거나 환속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렇지만 90년대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서서히 다시 살아나고 있다."

2월 26일 열린 한 · 몽골불교교류협의회(이사장 지성, 동화사 주지) 사단법인화 기념법회 참석차 방한한 몽골 간단사 주지 초이잠츠 스님(사진)의 말이다.

스님은 "한국불교는 포교와 신행에 대한 경험이 많다. 몽골이 한국과의 불교교류를 통해 이런 경험을 배울 수 있다면 몽골불교가 다시 꽃을 피우는 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한 · 몽골 불교간의 자매 결연을 맺어 지속적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간다면 동아시아 불교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90년대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몽골 인구 중 90%가 불교신자이며, 스님은 3천여 명 정도이고 그중 1천여 명이 간단사 스님이다.

몽골불교계는 올해 네팔 룸비니와 인도 보디가야에 몽골 사찰을 건립하고, 몽골 현지에 티베트 불교 교육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세계불교 자연보호를 위한 국제세미나도 올 6월 경 개최한다.

1951년생인 초이잠츠 스님은 69년 단증어서르 스님을 은사로 출가, 사회주의 치하에서 유일하게 활동을 해온 몽골 대표 사찰 간단사를 이끌고 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지역 종교화합에 최선"

포항사암련 새회장 난승 스님

2월 19일 죽림사에서 열린 포항사암연합회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새 사암련 회장에 추대된 난승 스님(운흥사 주지 · 사진)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포항시장의 성시화 발언 사태 이후로 오히려 종교 간의 화합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신부님들과 조만간 1차 모임을 가질 계획이고, 여기에서 개신교를 포함해 불교와 천주교 등 각 종교가 화합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정작 난승 스님이 걱정하는 것은 지역 사찰 간 화합. 난승 스님은 "이제는 여러 종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암연합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회원 사찰 수도 늘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1972년 탄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82년 동국대를 졸업한 후 월정사 교무, 포항 오어사 주지, 학산종합사회복지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포항환경운동연합 고문, 노인요양시설 정애원 원장 등을 맡고 있다. 한명우 기자

"도움 필요한 곳 어디든 가겠다"

불교봉사연합 새회장 서병흔씨

2월 26일 사단법인 불교봉사연합 제 2대 회장으로 취임한 서병흔(71 · 사진) 회장은 "누군가 앞장을 서야한다면 불교봉사연합의 5백여 회원이 봉사의 선두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서 회장은 또한 "앞장서는 일은 결코 상을 내는 일이 아니라 타종교에 비해 소극적인 불교봉사에 활로를 찾는 일이 될 것"이라는 설명도 덧 붙였다.

2002년 12월, 불교봉사연합 창립 당시 조직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한 서 회장은 부산불교신도회 감사를 20년 동안 지낸 부산불교계의 오랜 일꾼. 부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토대로 한 서 회장의 봉사관은 확고하다. "불자라면 당연히 최고의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서병흔 회장. 서회장은"내 남은 생 동안 내가 가진 사회경험과 재산, 몸과 마음을 모두 받쳐서 보다 적극적으로 불교봉사의 영역을 넓히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불교봉사연합은 앞으로 다도, 꽃꽂이 등 시민들과 봉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강좌를 열어 도심속 수행공간이 될 예정이다.(051)863-0505 천미희 기자

은해사 승가대학원 졸업식

조계종립 은해사 승가대학원(원장 지안)은 2월 25일 은해사 경내에서 제3기 졸업식을 봉행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지안 스님은 이번에 학업을 마친 7명의 스님에게 졸업장과 삼장 강사 증서를 각각 수여했다.

성북노인복지관 성상담센터 개소

서울 성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성욱)은 3월 3일 '행복한 노후 성(性)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하면서 개소식을 가졌다. 이 날 행사에는 정성욱 관장과 성상담센터 나임순 소장, 노인 상담봉사자 8명을 비롯해 20여명이 참석했다. 정성욱 관장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사소한 고민까지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광동고 신대식 · 청담정보통신고 최병철 교장 임명

종립학교인 광동고와 청담정보통신고 신임 교장이 임명됐다.

의정부 광동고등학교는 2월 21일 신대식(50 · 사진 왼쪽) 前 광동중학교 교감을 신임 교장으로 임명했다.

신대식 교장은 81년 광동고의 전신인 광동여고에 지리 교사로 부임했으며 99년부터 2004년까지는 광동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했다.

평택 청담정보통신고도 2월 25일 최병철(60) 교감을 신임 교장으로 임명했다. 최교장은 청담정보통신고 상업교사로 27년 동안 근무했고 95년부터는 교감으로 재직했다. 김강진 기자

박정삼씨 금강대 석좌교수에

천태종립 금강대(총장 김유혁)는 3월 2일 언론인 출신 박정삼씨(사진)를 임기 4년의 석좌교수로 임명했다.

박 교수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일보 체육부장 홍보자료실장, 서울경제신문 기획조정실장, 국민일보 부사장, 스포츠투데이 부사장을 역임했다. 김원우 기자

동산불교대 제22회 졸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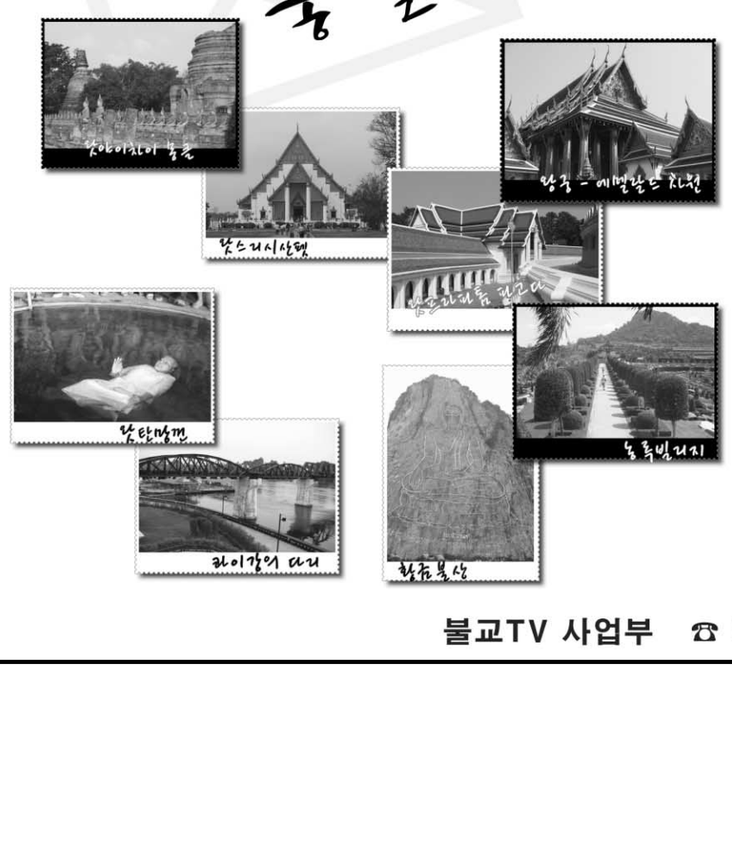
동산불교대(이사장 김재일)는 2월 27일 동산불교회관에서 제22회 졸업식을 거행했다. 이번 졸업식을 통해 졸업생 중 60명이 대학 포교사과정을, 2명이 대학원 법사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장을 수여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무진장 스님 김재일 이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국 10주년 불교TV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태국으로 떠나는 불교TV 해외성지순례

2005. 3. 28(월) ~ 4. 2(토) 5박 6일 일정 금액 790,000 원



제1일
- 인천 공항 출발
- 방콕 도착

제2일
- 태국 제 2대 왕조 아유타야로 이동
- 왓야이차이 몽콜, 왓스리시산펫 순례
- 왓노카야수타 사원 순례
- 칸차부리 이동 후 코끼리 및 뗏목 트레킹 관광

제3일
- 왓탐망껀 (물에 뜨는 스님) / 왓탐카우뿌 (동물사원)
- 파삿왕씽무엉씽 (석조 고적유물) 순례 후 중식
- 콰이강의 다리에서 탐카새 죽음의 계곡 열차타기 / 위령제 봉행
- 전쟁박물관 견학 / 석식 (콰이강 선상 디너)

제4일
- 왓부타몬톤 (걸어가는 부처상)
- 왓프라파톰 파고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불탑) 순례
- 방콕 귀환 / 중식 후 왓프라케오
- 왓포 순례 (왕궁 - 에메랄드 사원)
- 수상촌 관광 / 태국전통 궁중안마 체험

제5일
- 파타야로 이동
- 황금불상 및 농록빌리지 순례 (코끼리 쇼 포함)
- 승가대학 방문 (회향법회)
- 방콕출발

제6일
- 인천 공항 도착

불교TV 사업부 ☎ 02-3270-3333 / 887-2148 여행매니아 02-720-8828 www.btn.co.kr